

순창 단오제 옛 모습 전시회서 직접 만나보세요

백산리 자타불이각 12월까지 '성황대신 사적 현판 기획전' 단오제 거행된 '홀어머니산성' 발굴 조사 관련 자료도 관람

순창 단오제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순창군은 지역문화의 우수성과 군민 자긍심 함양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순창을 백산리 대모암 자타불이각 전시실에서 '성황대신사적현판 기획전시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려 시대 이후 약 700년간 순창 단오제와 성황신앙의 역사가 목판에 기록된 '성황대신 사적 현판' (국가민속문화재 제238호)을 만나볼 수 있다.

또 단오제가 거행된 공간이던 '홀어머니산성' (대모산성, 전북도 문화재자료 제70호)의 발굴조사 관련 사진 자료도 관람할 수 있다.

성황대신 사적 현판은 송판(가로 180cm, 세로 54cm) 2장으로 1743년 만들어졌으며, 한문과 이두문으로 73행 1600여 자가 기록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단오제 현판이 새겨진 유물이다.

고려 충렬왕 때 첨의중찬(현재의 국무총리)을 지내고 청백리로 추앙받았던 설공검(1224~1302)을 성황대신으로 신격화해 모시고 매년 단오절을 전후해 순창의 호장, 향리, 백성들이 대모산성에 올라 단오제(일종의 기우제)를 올렸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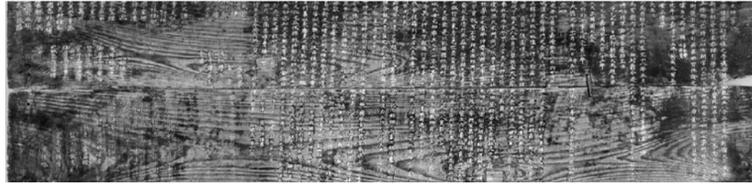
현판은 1940년대 일제 탄압으로 성황사(城隍祠)가 멸실되면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가 1992년 옥천향토문화사학회연구소에 의해 금곡면 순창설씨 제각에서 발견되는 등 수난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시회를 통해 고려에서 조선시대 단오제 거행 장소인 홀어머니산성과 성황대신 사적 현판의 밀접한 연관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단오제의 복원과 재현을 위한 학술연구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장영민 기자 jyg@kwangju.co.kr



순창군 인계면 두룡정이. 1970년대까지 단오날 부녀자들이 몸을 씻었던 곳이다.



국가민속문화재 제238호 '성황대신 사적 현판'.



익산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최대 200만원 용자 보증료 지원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용자 보증료를 특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는 기업이 용자를 받을 때 연간 0.5%의 보증료(기업 당 최대 200만원)를 내주는 방식이다.

익산시는 올해 1000억원의 용자금에 대해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익산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를 업체당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이고 용자금 상환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익산기업 상생특별보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넷째아 이상 출산하면 남원시, 2000만원 축하금

남원시가 인구증가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축하금을 대폭 늘렸다.<사진>

남원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출생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남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출생축하금은 최초 신청 시 5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된 후 매년 300만원씩 5년간 분할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한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의 출생축하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시는 첫째아 200만원과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분할로 지급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동학 무장기포지 사적 지정, 기념공간도 마련돼야"

고창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당시 사용 칼 패널 제작·전시도

동학농민혁명을 전국적인 '반봉건 반외세' 투쟁으로 승화시킨 고창군 무장기포지가 사적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창군은 (세호남사회연구소와 함께 지난 10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제17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창 무장기포지 사적 지정과 기념공간 조성사업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무장기포지를 사적으로 지정하고, 기념공간 마련의 당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예원대 교수)은 '19세기 후반 무장일대의 지역정세와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관장은 "동학지도자 전봉준이 고창 출신이었기에 고창에 협력기반이 많았고, 호남지역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무장 순화중포의 인적·물적 동원능력에 착안해 대접주를 찾아와 피신하며 봉기를 준비했다"며 고창에서 대규모 농민봉기가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진주 현대문화재단연구원이 '조선 후기 무장기포지 및 전봉준 생가터 일대의 지형연구', 조법중 우석대 교수는 '무장기포지의 범위와 기포 공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

김해근 삼아트연구소 예술감독은 '전봉준 생가터와 무장기포지 기념공간 조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순철 책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무장기포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무장기포지 일대에서 발견돼



지난 10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열린 '제17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에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후기 '칼'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고창군 제공>

표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후기 칼(刀)에 대한 조사결과를 패널로 제작·전시 눈길을 끌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 정읍시... 신규 모집도

정읍시는 착한가격업소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14일까지 대상 업소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의식업, 이·미용업 등 지역내 총 27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

정읍시는 일제정비를 통해 기존 27개소의 가격·위생·정결상태·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도 병행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정기준 평균 이하의 가격, 영업장 청결도, 품질·서비스 수준, 공공성 기준 등을 평가한다.

정읍시는 신규 지정업소와 재지정업소에는 착한 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정읍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중심으로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고 소비자물가안정에도 힘쓰겠다"며 "지역의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해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클래식 스타일 Classic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



